

■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와 향후 전망

공은 국토부로... 제주도 입장 변화 나올까

제주도 공정관리위원회 검토 후 국토교통부에 전달도, 의견 제시 없이 결과만 전달... 반영여부 국토부 뭉클 vs 불복 맞서며 지역사회 갈등 해소 기대는 난망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에 따라 '여론조사 공정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총 망라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이번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 계획 '찬성'보다 '반대'를 선택했고 성산주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을 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여론 조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

를 토대로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현재 공항시설법을 토대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항시설법에는 공항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현재 제2공항 기본계획은 고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토부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물어도 이 절차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에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자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여론 조사결과는 참고용일 뿐 (결과에 따른) 최종 결정은 국토부의 몫"이라며 "반대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더라도 이는 국토부에서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때문에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사이다.

향후 원 지사가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이번 여론조사에 나온 도민들의 뜻을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적극 요구할 경우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제2공항 건설 계획을 강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여론 조사결과를 "단순한 참고용료만 봐 달라"고 요청할 경우 국토부의 제2공항 건설 계획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가 이번 여론조사를 제주자치도와 마찬가지로 단순 '참고용'으

로 치부해서 끝낼지 아니면 제2공항 건설계획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할지 주목되는 이유이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 10일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번 조사는 도민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찬성 혹은 반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과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제주도)에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견도 달지 않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최종 결정은 국토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르기자 bigroad@ihalla.com

국무조정실 제주지원단 상설 기구되나

오영훈,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타 시·도 조직과 형평성 강조



는 정부 차원의 제주도 지원 기구다. 하지만 한시적 기구여서 2006년 신설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존속기한을 연장해오고 있다.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 오는 6월 30일이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원단을 상설 기구로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사진)은 18일 "국무조정실 제주지원단 상설화를 위해 부처와의 의견 조율 중에 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제주지원단은 제주특별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협의, 갈등 조정 등 총괄 역할을 하

오 의원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타 시·도의 지원조직 세종특별자치지원단,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이 상설기구인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제주특별법 개정과 여러 제도 개선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제주지원단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송재호 "짚라인·번지점프 안전관리 취약"

시설물안전법 개정안 발의



기·인천 7곳, 부산·경남 5곳, 대구·경북 9곳, 대전·충청 8곳, 광주·전라 7곳, 강원 16곳, 제주 4곳 등 총 56곳이 운영 중이다.

국내 관광 수요 증가로 이용객이 늘고 있는 짚라인·번지점프 등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사진)은 18일 짚라인·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시설물안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국내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점검 등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짚라인의 경우 2019년에 조사된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경

개정안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고시해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회=부미현기자

화순사거리~금모래해변 도시계획 도로개설 본격



강추위 속 대파 수확 18일 제주시 애월읍 한 밭에서 농민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 대파 수확작업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서귀포시는 화순사거리에서 화순금모래해변까지 연결하는 안덕(중로2-5-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L=0.71km, B=15m)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안덕 도시계획도로(중로 2-5-2호선)는 1980년 12월 1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20년 이상 미집행 된 장기미집행도로(L=0.71km, B=15m)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년 7월)에 따라 주민 이용도 및 보전가치가 높은 우선사업대상 38개 노선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노선으로, 그동안 토지출입허가 공고와 지적측량, 토지분할,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비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올 2월부터 보상 협의를 진행하게 됐다. 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받은 토지주는 시청 도시과(064-760-3811-5)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고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방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상민기자

도서지역 연료 운반선 하반기 운항

가스·석유 안정적 공급 기대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서지역에 연료 운반선이 운항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원(국비 10억원·도비 10억원)을 투자해 260t 규모의 연료 운반선을 건조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료 운반선은 5t 트럭 2대를 실을 수 있게 제작됐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 선박적 공무원 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연료 운반선 운항시 8개 도서지역(우도·상추자도·하추자도·비양도·황간도·추포도·가파도·마라도)에 가스(LPG)와 석유 등 안정

적인 연료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섬에는 현재 2397가구·4258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연료 운반선 건조사업은 정부의 '섬 관리 강화' 시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돼 지난 2018년 선정됐다"면서 "연료 운반선 운항이 도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대르기자

농촌 주택신축시 2억원 용자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이 추진된다. 주택 신축시에는 최대 2억원까지 용자 지원된다.

제주시는 3월 9일까지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귀농·귀

촌인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 내용은 단독주택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엔 용자 지원하게 된다. 또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신축 시에는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시에는 최대 1억원까지 용자 받을 수 있다. 금리의 경우,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게 된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메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을·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감소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말뚝이추출물 핵심물질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9종

PAA 염류잔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일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많은 물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분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와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저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Y.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